LG전자 "AI 게임 체인지 위해 구글 등과 개방적 협력"

박일평 CTO 기자간담회

"소비자는 실질적 가치가 제일 중요"
어떤 기업과도 파트너십 가능 내비쳐
씽큐, 전자산업서 게임 체인저 될 것

박일평 LG전자 최고기술자(CTO) 사장(사진)은 "인공지능(AI) 분야 전략은 개방과 공조"라고 강조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기업들과 협력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상의 판이 급속도로 바뀌고 너무 많이 복잡해져서 (소비자가) 제품을 처음 출시됐을 때 샀는데도 밸류(가치)가 뚝 떨어진다"면서 "이제는 회사 단독으로 가장 좋은 가치를 제공해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실질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것을 제공하고, 우리 자체의 플랫폼도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같은 전략 아래 최근 론칭한 AI의 글로벌 인공지능 브랜드 '씽큐(ThinQ)'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씽큐는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세계 각지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축적해온 제품 사용패턴 데이터 ▲폭넓은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기업들과 맺은 파트너십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구글, 아마존, 네이버 등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글의 인공지능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인공지능 TV 'LG 올레드 TV 씽큐',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스피커', 네이버와 협력해 인공지능 스피커 '씽큐 허브' 등을 내놓았다.

박 사장은 어떤 기업과도 협력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파트너십 구축에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LG전자는 기기 관련 영역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제품 차별화를 시도하는 등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영역에서 더 잘하고, 파트너십을 늘려야할 영역이 많아진다면 그에 따라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그는 "미래 콘셉트로 3개를 선보였는데 우선 서비스 로봇 쪽에 집중하고 다른 분야 로봇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서빙 로봇, 포터 로봇, 쇼핑카트 로봇 등 신규 로봇 3종을 선보였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과 스타필드 하남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호텔, 대형 슈퍼마켓 등 다양한 영역으로 로봇 사업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미래 먹거리로 사업확장을 진행 중인 전장사업에 대해 "자율주행은 연구하고 있다"며 "AI 같은 기술을 융복합해 자율주행, 미래 커넥티드카 시장에 맞는 기술 다양하게 만들어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사람이 제품과 서비스를 배우던 것과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사람을 배우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LG전자는 씽큐가 소프트웨어 혁신을 통해 전자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21cindiun@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왼쪽)이 9일(현지 시간) 'CES 2018'의 삼성전자 부스에서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과 함께 IoT기술과 전장기술이 접목된 '디지털 콕핏'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동통신도 中 추격 쫓겨 인프라 사업자 규제 협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4세대 이동통신(4G) 후반기에 오면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걱정해야 할 정도"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사장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8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참관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좋아했지만, 우리에게 반도체를 사 간 회사들은 그 반도체로 AI, 데이터 등을 하면서 우리와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앞서가는 이유에 대해 박 사장은 규제를 꼽았다. 그는 "중국의 규제가 적은 반면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만 해도 관련된 정부부처가 상당히 많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도 협력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사장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사업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SK텔레콤은 인프라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며 "혁신을 따라잡는 과제가 있다면 인프라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에 5G 생태계를 조성해 수많이 기술기업이 우리 인프라를 활용하고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또 2019년 상용화될 5G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비즈니스모델(BM)은 자율주행과 연결된 '텔레매틱스'와 '미디어'라고 답했다. 그는 "5G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은 텔레매틱스와 미디어"라며 "(이번 출장에서) 히어, 엔비디아도 만나고 미디어 쪽으로도 기술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부스를 가장 먼저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는 "전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곳"이라며 "(삼성전자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車 안에서 집 안 냉장고 식재료 확인에 레시피까지

삼성전자-하만 '디지털 콕핏' 체험
디지털 전장제품으로 구성된 운전석·조수석
AI 비서 '빅스비'와 IoT '스마트싱스' 적용

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CES 2018이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만과 공동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Digital Cockpit)'을 보고 체험하려는 참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디지털 콕핏은 디지털 전장제품으로만 구성된 운전석과 조수석 전방 영역을 말한다.

삼성전자 이날 공개한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 인공지능(AI) 비서인 '빅스비'와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용 클라우드 '스마트싱스(SmartThings)'가 적용돼 터치는 물론 음성만으로 간편하게 차 안에 있는 에어컨·오디오 음량·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서는 집 안의 냉장고, 청소기 등 IoT 기기들을 간단히 제어할 수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전시회 CES에서 '디지털 콕핏'을 체험해 봤다. /정은미 기자

기자도 운전석과 VR 체험기를 통해 디지털 콕핏 서비스를 체험해 봤다.

먼저 VR 체험기 버튼을 누르자 시동이 걸리고 운전자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시동이 걸린 이후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디지털 콕핏인 디스플레이 3개(기존 차량의 대쉬보드)에 불이 들어왔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갤럭시의 앱을 사용하듯 버튼을 누르면 내이게이션, 에어컨, 폰 기능 등으로 연결됐다. 또 디스플레이 색도 운전자가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변경해 사용 가능했다.

VR 체험 후 오른 운전석에서는 디지털 콕핏의 디스플레이가 눈에 명확히 들어왔다. 디스플레이는 12.3형 OLED, 12.4형 플렉시블OLED, 28형 QLED로 이뤄졌다.

중앙과 조수석에 걸쳐 있는 28형 QLED 디스플레이는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운전자 쪽으로는 내비게이션 등의 운전 정보를 보여줬다. 조수석 쪽으로는 영상물 감상과 인터넷 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을 위해서라는 게 전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차량에는 룸미러와 사이드미러가 없었다. 대신 룸미러 위치에 '미러 대체 비전 시스템(Mirror Replacement Vision System)'이 사이드미러와 백미러 역할을 했다. 차선 변경시 원하는 방향의 시야가 확대됐다.

조수석에서는 집안의 IoT 냉장고와 연결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차 안에서도 집안 냉장고의 식재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레시피를 검색할 수도 있었다. 전시장 내 차량에서는 저장된 냉장고 영상이 나와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삼성전자 전장사업팀장 박종환 부사장은 "디지털 콕핏은 삼성전자와 하만의 노하우가 집약된 전장 기술 협력의 첫 결실"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삼성전자와 하만은 커넥티트 카 사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정은미 기자

두산 박지원 부회장, 디지털 혁신 위해 CES 참관

글로벌 기술동향 파악… 新사업 아이디어 모색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디지털 혁신을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18'을 참관한다.

10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부회장은 그룹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이현순 부회장과 최고디지털혁신(CDO) 형원준 사장, 동현수 ㈜두산 사업부문 사장,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스캇 박 두산밥캣 사장 등 최고 경영진과 함께 CES를 방문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글로벌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해 그룹의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혁신'에 접목할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해 9월 열린 '2017 로보월드 전시회'에서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두산은 지난해 12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그룹의 디지털혁신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디지털혁신(CDO)' 조직을 신설하고 SAP코리아 대표이사 출신의 형원준 사장을 영입한 바 있다.

박 부회장을 비롯한 두산 최고 경영진은 CES에서 주요 업체들의 전시관을 둘러보는 한편 현지 전문가들과 별도의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세계적 액셀러레이터(창업육성업체)인 알케미스트 최고경영자(CEO)와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디지털 전문가 등과 함께 스마트시티, 로보틱스와 같은 그룹 사업과 디지털 기술에 관한 논의가 이뤄진다.

계열사별 디지털혁신 과정을 보면 두산중공업은 발전소 원격 관리 서비스 센터(RMSC)를 개설해 발전소 운영 정보를 빅데이터로 관리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한국과 미국의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장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텔레매틱스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두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협동로봇 사업에 지난해 말 진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